

폴란드 최근 정치·경제 동향

2009년 7월

1. 일반사항
2. 주요 경제지표
3. 경제동향
4. 정치·사회 동향
5.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
6. 우리나라와의 관계

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

1. 일반사항

- 인 구 : 38.1백만 명 (2008년)
- 면 적 : 311.9천 km² (한반도의 1.4배)
- 수 도 : 바르샤바 (Warsawa)
- 정부형태 : 내각책임제 (Lech Kaczynski 대통령, Donald Tusk 총리)

2. 주요 경제지표(2008년 기준)

- 국내총생산(GDP) : 5,257억 달러
*한국 9,291억 달러
- 1인당 GDP : 13,795달러
- 외환보유액('09. 4월 기준): 611억 달러
- 교역규모 : 수출 1,753억 달러, 수입 1,990억 달러

폴란드의 주요 교역국 (2008년 기준)

(단위: %)

수 출		수 입	
국 가	비중	국 가	비중
독 일	25.9	독 일	24.0
이 탈 리 아	6.6	러 시 아	8.7
프 랑 스	6.1	중 국	7.2
영 국	5.9	이 탈 리 아	6.8

자료: EIU, Country Profile, 2008.

[폴란드의 주요 수출품목]

- 기계·운송장비(40.4%), 공산품(23.1%), 기타 공산품(13.0%) 등

[폴란드의 주요 수입품목]

- 기계·운송장비(34.9%), 공산품(20.9%), 화학제품(12.9%) 등

3. 경제동향

가. 국내경제

(단위: %)

구 분	2005	2006	2007	2008 ^e	2009 ^f
경제성장률	3.6	6.2	6.7	4.9	-0.8
재정수지 / GDP	-2.9	-2.4	-1.4	-1.9	-3.8
소비자물가상승률	2.1	1.0	2.5	4.2	2.5

자료: EIU, Country Report, June 2009.

□ 2009년 경기위축 예상

- 폴란드의 풍부한 숙련 저임 노동력, 유럽의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,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, EU 가입에 따른 투자여건 개선 및 FDI 지속적 증가 등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인임.

* 2006년 및 2007년 6%대의 경제성장률 기록

- 2008년 3분기까지 건설부문의 급성장, 민간소비 및 고정자본투자 증가의 지속으로 양호한 경제성장세를 지속하였으나, 하반기 중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기의 급속한 침체 및 기업투자의 감소로 **2008년**에는 **4.9%**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.
- 외국인투자 유입분의 감소 등으로 인한 국내총투자 부진,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위축 등으로 2009년 1분기 0.8%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**2009년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** 예상됨.
 - 2008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을 폴란드도 받았으나 내수 시장의 규모가 크고 수출의존도가 40% 수준의 낮은 관계로 주변 중부유럽 국가 중에서는 타격을 가장 덜 받은 국가로 평가되고 있음.

□ 2009년 재정수지 목표는 달성하기 쉽지 않을 전망

- 2007년 7월부터 발효된 사회보장부담금 감축으로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데

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예상치를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달성에 힘입어 2007년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1.4%를 기록하였음.

- 2008년에는 부양가족 세금공제, 사회보장부담금 추가감축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개선이 쉽지 않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수준이 1.9%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다소 악화되었으나, 중동부유럽 평균 수준보다는 양호했던 것으로 분석됨.
- 폴란드 정부는 재정수지 적자 목표치를 182억 즈워티(55억 달러 상당)로 전년 대비 재정수지 적자규모를 크게 감축할 것을 설정하였으나,
 - 2009년 1~4월중 경제활동이 크게 둔화되고 개인소득세 인하조치와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인한 법인세 수입의 감소로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이미 연간 목표치의 84%(150억 즈워티)까지 확대된 상황임.

□ 물가상승 압력 다소 둔화

- 2007년에는 소매매출 증가, 임금상승 및 고용증대 등의 원인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2.5%를 기록하였음.
- 2008년에는 영국 등 EU회원국으로의 폴란드 근로자 이주에 따른 실업자 감소 등으로 실질임금 급상승, 생물연료 수요 증대 등에 기인한 식료품가격 인상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.2%를 기록하였음.
- 2009년 들어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로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.8%를 기록하였으며, 2월말 동유럽 경제위기 심화로 인한 즈워티 통화가치의 급격한 하락으로 수입 식료품 및 연료가격이 상승하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월 3.6%, 4월 4.0%를 각각 기록하였으나,
 - 4월 들어 통화가치가 소폭 상승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해외근로자의 귀국으로 인한 임금 하락 및 경기침체의 영향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연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.5%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.

나. 대외거래

주요 대외거래 지표

(단위: 백만 달러, %)

구 분	2005	2006	2007	2008 ^e	2009 ^f
경 상 수 지	-3,716	-9,394	-20,119	-28,472	-19,900
경상수지/GDP	-1.2	-2.8	-4.7	-5.4	-5.2
상 품 수 지	-2,766	-7,006	-17,101	-23,704	-20,500
수 출	96,395	117,468	145,302	175,294	135,350
수 입	99,161	124,474	162,403	198,998	155,940
외 환 보 유 액	40,487	46,107	62,720	58,931	..

자료: EIU, Country Report, June 2009.

□ 2009년 들어 수입이 크게 감소하며 경상수지 적자폭 축소

- 폴란드 경상수지 추세는 상품수지에 크게 좌우되고 있으며, 2005년 이후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빠르게 확대되어 왔음.
 - 2007년에는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의 확대 및 외국기업의 투자송금 증가 등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4.7%로 악화되었음.
- 2008년에는 폴란드 해외근로자의 본국송금과 EU기금유입 증가로 경상이전수지 흑자는 지속되었으나 국제고금리 등으로 소득수지 적자가 증가하였고 수입증가로 상품수지 적자가 확대되어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5.4%를 기록하였음.
- 2009년 들어 경제활동 둔화로 인한 수입의 급격한 감소, 경상이전수지 및 소득수지 개선으로 경상수지 적자는 1분기 1.5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(71억 달러)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연중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.

□ 유로채 발행, IMF FCL자금 수혜 등 대외차입의 잇따른 성공

- 체코(15억 유로)에 이어 동유럽 국가중 두 번째로 폴란드는 2009년 4월 15일 7.5억 유로 규모의 유로채 발행(2014년 만기)에 성공하였음.

- 금년 5월 6일에는 IMF가 신축적 신용공여제도(Flexible Credit Line: FCL)을 통해 폴란드에 대해 205억 달러(155억 유로 상당)의 자금지원을 승인하였음.
- 이번 지원은 멕시코(470억 달러)에 이어 두 번째로 IMF는 경제 펀더멘털이 양호한 국가를 대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2009년 3월 24일 FCL을 도입한 바 있음.

□ 2012년 예정이었던 유로존 가입은 지연될 전망

- 1990년 체제전환 당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하여 미 달러화 대비 고정환율제도가 시행되었고, 1991년에는 제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crawling-peg 시스템을 채택함. 1990년대 후반 들어 즈위티화의 변동폭이 점차 확대되어 오다가 2000년 4월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전면 시행함.
- 이후 폴란드는 2012년 유로화 도입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, 유로화 가입 조건 충족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유로존 가입시점이 예정보다는 다소 지연될 것으로 전망됨.
- 유로존 가입조건 중 하나인 ERM II(EU 환율조정메카니즘) 채택에 대해 총리(PO당 소속)와 대통령(PiS당 소속)간 정치적인 갈등이 잠재되어 있어 유로화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도 난항을 겪고 있음.

4. 정치·사회 동향

가. 정치 안정성

□ 2007년 연정 붕괴 후 조기총선 실시

- 2001년 총선에서 승리한 SLD 정부는 2002년 말 EU 가입협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2003년 6월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 표결로 폴란드는 2004년 5월 유럽연합(EU)에 공식적으로 가입함.
- 2007년 PiS당 소속 하원의장이 지지자들을 이끌고 탈당한 데 이어 카진스키 총리가 부총리와 내무장관을 전격 해임하고 SD당 각료 2명이 사퇴함

으로써 SD당은 사실상 연정에서 탈퇴함. 법과정의당(PiS)의 또 다른 연정 파트너인 LRP당이 SD당과 합당함으로써 우파연정의 붕괴가 가속화됨.

- 정국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결국 **2007년 10월 조기총선**을 실시하였으며, 중도우파 제1야당이었던 시민강령당(PO)이 최다 득표로 정권이 교체됨.
- 2007년 11월 카진스키 대통령이 투스크 신임총리와 각료 18명을 임명함으로써 PO당은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**폴란드농민당(PSL)**과의 연정을 공식 출범시킴.
- 신정부는 고용창출 등 경제발전을 통한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수행하는 한편,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화합·대화를 통한 EU내 신뢰회복, 대독 및 대러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.

□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주요 입법안 처리 난항

- PiS당 소속인 카진스키 대통령은 2008년 7월 공영 방송미디어 개혁에 대한 입법안, 2008년 11월 보건제도 개혁에 관한 입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향후 논쟁중인 입법안들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의 뜻을 밝힘으로써 **PO당과 정국운영에 관한 시각차이가** 확연히 다름을 보여주었음.
- 집권 연립정부인 PO-PSL당은 충분한 의석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대통령 거부권을 철회시키기 위해서는 중도좌파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하지만, 추진중인 법안들이 당간 입장차이가 큰 법안들이 많아 향후 정국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.

□ 2009년 유럽의회 선거결과 - 중도우파 PO당의 승리

- 금년 6월 8일에 치러진 폴란드내 유럽의회선거 결과, 집권 중도우파인 PO당이 25석(44.4%), 제1야당인 PiS당이 15석(27.4%)을 확보하며 집권여당이 크게 승리한 것으로 나타남.
- 최근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**현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안정적**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.

나. 대외 관계

□ 대 EU 외교관계 호전

- 2005년 12월 EU 정상회의에서 EU의 2007-13년 예산협상 결과, 폴란드는 **673억 유로의 EU 구조조정기금 수혜**를 확보하면서 폴란드 정부는 가시적인 외교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를 받았음.
- 2007년 6월, EU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EU 헌법조약(일명 리스본조약) 제정내용 중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EU 각료이사회 **가중다수결(QMV) 의결제도 도입** 시기를 폴란드 정부의 요구대로 당초 2009년에서 **2017년으로 연장**하는 성과를 거두었음.
 - 의회는 2008년 4월 초 리스본조약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으며 카진스키 대통령은 아일랜드에서 이 조약이 비준되면 본인도 서명을 할 것이라고 밝힘.

□ 대미 외교, 긴밀한 협력관계 조성

- 대미 관계는 폴란드의 이라크 파병 등으로 긴밀하게 유지되어 왔음. 2007년 미-폴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의 동유럽 배치 **미사일방어(MD) 기지**를 폴란드에 설치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미-폴 양국간 **군사협력 관계**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된 바 있음.
- PO당과 투스크 총리는 대미외교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, 선거운동에서 이라크 주둔 폴란드 병력의 철수를 공약하였으며, 미국이 MD 기지를 폴란드에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혀 NATO 회원국인 폴란드 정부는 **미국과 안보협력 분야에 대한 추가 협상**을 진행하고 있음.

□ 대러 외교,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

- 대 러시아 관계는 러시아가 폴란드의 원유·가스의 주요 공급원으로서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만이 아님. 2008년 8월 러시아-그루지야 전쟁에서 폴란드의 그루지야에 대한 강력지원, 미국의 미사일방어 기지 설치 합의 등으로 폴란드의 지지 및 정치적 개입 이후 **폴-러 관계는 악화**됨.

5.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

가. 국제신인도

□ 주요기관의 국가신용도 평가등급은 안정적으로 유지

- 주요 국가신용도 평가기관이 폴란드에 대해 모두 상위 투자적격등급을 부여하고 있음.
- 한편, 2008년 2월 S&P는 신정부 출범 이후 재정 및 경제 구조개혁 여건 개선, 투자 및 고용 증대에 따른 경제성장 지속 전망 등을 들어 등급전망을 A- Stable(유지)에서 A- Positive(긍정적)으로 상향조정하였으나, 10월말 국제 금융시장 불안 및 경기침체 전망에 따라 등급전망을 A- Stable(유지)로 다시 하향조정하였음.

□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 순위

- OECD: 2등급('08. 1), Moody's: A2('02. 11)
- S&P: BBB+('00. 5) → A-('07. 3)
- Fitch: BBB+('98.11) → A-('07. 1)

□ 주요 ECA의 지원태도

- 미국 EXIM: 전액 인수가능, 재량한도 없음
- 영국 ECGD: 전액 인수가능, 독일 Hermes: 전액 단기인수 가능

나. 대외지급능력

주요 외채현황 관련 지표

(단위: 백만 달러, %)

	2005	2006	2007	2008 ^e	2009 ^f
총 외 채 잔 액	98,821	125,831	170,654	204,900	176,500
총외채잔액/GDP	32.5	36.8	40.2	38.9	45.9
D. S. R.	27.7	23.8	19.4	21.4	30.4

자료: EIU, Viewswire, 2009.

□ 외채상환부담 경감

- 폴란드 정부는 1991년, 1994년에 각각 파리클럽과 런던클럽을 통하여 채권단과 채무 리스케줄링에 합의하였음. 동 합의에 따라 당시 외채의 50% (순 현재가치 기준) 정도가 탕감되고, 나머지는 파리클럽과 런던클럽에서 각각 2014년, 2024년까지 채무상환이 연장되었음.
- 2005년에는 장기 유로채권 발행을 통해 파리클럽 대상채무의 절반 정도를 조기상환(buy-back)하는 채무재조정 협상을 일부 채권국과 추진하였음. 이를 통해 정부 외채의 만기구조가 개선되고 2006~09년 만기 집중으로 인한 상환부담이 크게 경감되었음.
- 2009년 5월 폴란드 중앙은행에 따르면 금년 폴란드가 상환해야 하는 총 외채금액은 639억 유로이며, 이 중 361억 유로는 폴란드 진출 현지기업이 해외 모기업으로부터의 차입분으로 만기연장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됨.

6. 우리나라와의 관계

가. 개황

□ 국교수립 : 1989. 11. 1 수교(북한과는 1948. 10. 16)

□ 주요협정 : 투자보장협정('89), 항공협정, 이중과세방지협정(이상 '91), 문화협정, 과학기술협력협정, 사증면제협정(이상 '93), 세관협력협정('99), 관광협력협정,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(이상 '04), 사회보장협정('09)

나. 대 폴란드 교역현황

□ 교역규모(2008년) : 44.2억 달러(수출 41.1억 달러, 수입 3.1억 달러)

- 폴란드와의 교역규모는 2006년 28.8억 달러, 2007년 38.1억 달러, 2008년 44.2억 달러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, 2008년 기준 총수출액은 41.1억 달러, 수입은 3.1억 달러를 기록

- 우리나라의 대폴란드 주요 수출품목은 수송기계와 산업기계이며, 특히 2007년과 2008년 전체 수출액에서 광학기기 및 영상기기가 전체의 41.6%,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이 각각 7.4%, 7.2%를 차지하고 있음.
- 반면, 우리나라는 폴란드로부터 자동차부품, 기계부품, 육류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음.

최근 對 폴란드 교역 추이

(단위: 백만 달러)

	2006	2007	2008	2009. 1-5	주요 품목
수 출	2,613	3,509	4,117	1,537	수송기계, 산업기계, 산업용전자제품
수 입	271	301	307	95	철강제품, 섬유제품, 기계부품공구및금형

자료: 한국무역협회, 국가별 수출입 통계

□ 해외직접투자(2008년 12월말 현재): 435건, 12억 달러(총투자 누계기준)